

한여름에 모피 코트·패딩 세일

지역 유통업계 '역시즌' 마케팅... 아웃도어 브랜드도 자체 행사

별별더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 백화점과 TV 홈쇼핑 등 유통업계의 '역(逆)시즌' 마케팅이 한창이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역시즌 마케팅 전략이지만 올해는 장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맞물려 업계가 여느 때보다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3일까지 지하1층 행사장에서 대규모 불황의 겨울 상품을 선보이는 '한여름에 만나는 겨울 구스다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K2, 밀레, 블랙아크와 연계해 다운 패딩, 다운재킷 등 인기 상품을 최대 60% 저렴하게 판매한다.

백화점 측은 지난해 8월에 진행한 아웃

도어 역시즌 행사를 올해는 두 달 앞당겼다. 지난해 아웃도어 업체별로 겨울상품 생산량을 늘려 시즌이 끝나고 나서 재고가 많이 쌓인 영향이 크다.

광주신세계도 여름 정기세일에서 모피 등을 특가 판매한다. 온진모피는 모피 제품을 60~70% 할인판매하며 최수아와 쉬즈미스 등 여성류매장에서도 롱코트와 가죽재킷을 각각 30~40%와 40~60% 저렴하게 판다.

TV 홈쇼핑에서도 역시즌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GS샵은 지난 2일부터 진도 밍크코트 9개 품목을 30% 이상 할인 판매해 1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GS

샵은 인터넷 쇼핑몰(www.gsshop.com)

에서도 특가 상품을 추천하는 '오늘의 딜' 코너에서 역시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가죽 재킷, 패딩 코트 등을 50%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CJ오쇼핑은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알제리전이 열린 지난 23일 새벽 방송에서 여성용 오리털 점퍼와 기모 팬츠 등 겨울 의류를 팔았다.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자체적으로 역시즌 할인 행사에 나섰다. K2는 다음 달 24일까지 다운재킷을 할인 판매하는 '얼리 버드 지프트 이벤트'를 연다. 행사 기간 다운재킷 구매 고객에게는 그래픽 티셔츠도 증정한다. 코오롱스포츠는 온라인쇼핑몰(www.kolonsp.com)에서 지난 17일부터 시그니처 다운 재킷 헤스터아를 4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모피 매장서 한 여성고객이 60% 할인 판매하는 제품을 입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줄고 소매점 매출은 증가

호남통계청, 5월 산업동향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감소했지만 대형소매점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4.6%나 감소했다.

3월에 0.7%, 4월에 2.8% 각각 감소한 데 이어 5월 연속 감소세다. 출하도 전월보다 4.1% 감소했고, 재고

는 3.3% 증가했다. 반면 대형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5% 감소했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9.8%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전월보다 0.7%, 대형마트는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전월보다 1.9% 각각 감소했다.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8.0%, 전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소매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감소했지만 전월에 비하면 무려 19.9%나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0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6 18 21 33 34	3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29,141,557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2,595,172	36
3 5개 숫자 일치	1,553,016	1,451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476
5 3개 숫자 일치	5,000	1,266,398

이코노&비즈 피플

여태남 일군토건 대표

신뢰·안전... 10년만에 연매출 1500억

"모든 사람이 건설경기가 불황이라고 말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광주의 증권건설업체 ㈜일군토건이 지독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년 성장을 일구고 있다.

지난 2004년 창업, 6년 만에 수도권까지 진출한 일군토건은 창업 10년 만에 연매출 1500억원을 달성하며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서울을 비롯, 대구와 원주, 인천 등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승승장구 중이다.

일군토건이 짧은 시간에 발전을 거듭한 것은 '신뢰'와 '안전'을 강조하는 여태남(43) 대표의 경영철학 덕분이다. 여 대표는 "2010년 말 수도권으로 진출한 뒤 수년 만에 서울과 대구에서 오피스텔과 상가의 도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했고, 현재는 매출의 80%가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발생한다"며 "시행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안전제일의 결과물이 일군토건을 도약시켰다"고 말했다.

여 대표가 말하는 신뢰란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거래를 보고 손해를 감수하면 결국 사람을 얻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일군토건은 지난 2008년 수원지구 개발 당시 3개의 현장을 수주, 시공에 들어갔지만 그해 불어닥친 글로벌금융위기 파동으로 큰 곤란에 처했다.

당시 t당 70만원이던 철근가격이 120만원까지 치솟았고, 당장 공사비만 1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대로 공사를 진행

2004년 광주서 창업

서울·대구 등 전국에 사업장

"경기탓 말고 적극 도전을"

하면 손해가 볼 보듯 뻔한 상황.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까지 몰렸지만 여 대표는 일체의 추가공사비 요구 없이 계약대로 공사를 마쳤다.

여 대표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멀리 봐야 했다. 당시 불이익을 먼저 감수하고 다짐했다"며 "이후 시행사 대표와 훨씬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면서 인맥을 쌓아 서울 진출도 수월했다"고 말했다.

'안전제일'도 그의 모토다. 여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시행사 관계자를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군대의 경례처럼 '안전'을 먼저 외친다. 믿을 수 없는 단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의지를 혼돈하는 것이다.

25살의 나이에 건축기사로 현장에 발을 디딘 여 대표는 이른 나이에 품도 이뤘다. 상상했던 이미지의 건물을 자신의 힘으로 지어냈다. 창업 3년 만인 지난 2007년 광주시 북구 동천동에 지은 사옥은 우추산을 담은, 광주에서 보기 드문 건물이자. 여 대표는 "건축업을 시작하면서 머릿속엔 항상 내가 디자인한 건물을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며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꼭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나날이 침체하는 건설경기 속에서도 '일감'은 여전히 넘쳐나며 '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따이한'다고 강조했다. 불황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이다.

그는 "관공사 수주만 노리고 시간을 보내는 업체는 결국 갈수록 힘들어질 뿐"이라며 "끊임없이 현장을 돌며 영업하고, 도전정신으로 돌파구를 찾아 보면 일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지식을 쌓고, 현상유지가 아닌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불경기에도 일감은 골라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ina@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수급여건 양호... 건설·증권 관심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와 주 후반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초 2011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1988포인트를 기록해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증시와는 달리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ک 정정불안과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둔 경제계들은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오는 7월부터 본

격화될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2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반기말 및 연말 원도우 드레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스피지수의 좁은 박스권 흐름으로 상반기 수익률 제고에 필요한 상황이며, 코스피지수가 PBR 1배에 근접해 있고, 국민연금의 대형주펀드 위탁 집행 및 사학연금, 교원공제 등의 대형주를 중심으로하는 인덱스 펀드 집행 등 대형주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수급 여건

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는 7월 4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시즌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최근 연간실적 추정치는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시즌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난분기까지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건설, 증권업종의 관심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옆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 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신축원룸매매 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12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 500만 (1년 6000만 수익발생)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오피스텔매매(수익성)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 200만, 1년 2400만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동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용9천)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나주시 삼연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용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역 1번 출구 2분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올수리 전제제품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월1천) → 1억5천(용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월1천) → 1억2천(주인거주가능 시비없음)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불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는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보전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정동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11억, 최저4억9천7, 충정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41억4,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802㎡) 감정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유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정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정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승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80만) 매매가능

010-6832-9700 / 062)512-8080